제 99호 교수노조 3

지난 호에는 교수노조 찬반 투표에 앞서 대학은 큰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교수는 교수노조로 인해 얻을 혜택과 불이익을 생각하는 동시 교수노조라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엇갈리는 이념과 이해타산 때문에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갈등을 연봉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교수는 각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똑똑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교수가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수들은 성격상, 체면상, 또는 신조상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를 꺼려합니다. 결국 그들은 연봉을 흥정할 줄 아는 '유능한' 교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만을 교수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거나 이념적인 문제로 변신시켜 교수협의회를 통해서 대학당국에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의는 구차한 '구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들은 한편으로 교수노조가 교수 개개인을 대신하여 단체로 연봉과 권리를 흥정하는 것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부 교수들은 교수노조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면이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자신이 노동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산업화 시대의 육체노동 관념을 상기하면서 자신이 노동자 계급에 속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주요 노동력이란 두뇌력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여태껏 간직해온 고귀한 교수직 관념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잔소리 코너>>
제가 지난 95년에 교수를 대상으로 한 어느 특강에서 "교직이 성직에서 전문직으로 변했고 또 다시 노동직으로 변하고 있다"는 교육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청중은 이 말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는지 반응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97년도에는 제가 「연봉제의 효력과 부작용」이라는 글에 교수노조의 창립을 암시하였습니다. 그 글에 대한 반응은 무척 많았지만 교수노조에 대한 반응은 역시 없었습니다. "외국의 경우겠지, 설마 한국에서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교수노조추진기획단이 결성되었습니다. 불과 3년만에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교수노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지금 확실하게 지니고 계시면 앞으로 닥칠 회오리바람에 휩쓸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 조벽, 2000